

Ⅲ. 주요 경제 현안

1. 대출금리 정말 떨어지나

- (최근의 기업 금융 여건) 실세 금리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는 기업의 堪耐 可能 水準보다 높으며, 신용경색 현상도 지속
- (한은 RP 금리 인하의 배경) 기업 자금 조달 금리의 하락을 유도하고 신용경색을 해소하여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것이 주요 배경
- (대출 금리 하락 가능성 진단) 대기업 대출 기준 금리는 하락할 전망이나 여타 기업들은 신용위험으로 인한 가산 금리로 대출 금리 하락 폭이 작을 전망이며, 신용경색의 완전한 해소는 힘들어 자금 가용성에도 문제가 상존할 것임

□ 최근의 기업 금융 여건

- 시중 금리의 하락 속에서도 대출 금리는 기업의 '堪耐 可能 水準'을 상회
 - 한은의 저금리 유도에 따라 콜, CP, 회사채 금리 등 대표적인 시중 실세 금리들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음
 - 이에 따라 대기업 대출 기준 금리는 15%대로 하락하여 감내 가능 수준에 근접하였으나,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가산 금리를 고려할 경우 여전히 감내 가능 수준보다 크게 높음
- 금융기관의 유동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 현상은 지속
 - 이 같은 금리의 하락세와 금융기관의 유동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기업 부문으로 자금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신용경색 현상은 지속되고 있음

<주요 금리 및 은행 대출 추이>

<금리> : 기말 기준 연율(%)							
	97. 11	97. 12	98. 3	98. 6	98. 7	98. 8	98. 9
RP매각(1~4일물)	13.0	35.1	23.0	14.5	10.7	8.4	7.1
콜(1일물)	12.1	31.3	22.1	14.4	10.1	8.5	7.1
회사채(3년물)	15.1	29.0	18.3	16.0	12.3	11.7	11.9
당좌대출(대기업)	17.1	37.5	24.9	18.5	16.3	15.7	15.1
<대출> : 기간 중 증감액(억원)							
	98. 1/4	98. 2/4	98. 7	98. 8	98. 9		
은행대출	79,065	-48,480	19,478	-26,231	-11,893		
신탁대출	-27,498	-39,086	-12,131	-17,029	-15,299		
대출 합계	51,567	-87,566	7,347	-43,260	-27,192		

자료 : 한국은행

1)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100개 기업 재무 담당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.6%가 10~14%를 감내 가능한 금리로 응답한 반면, 57.8%가 실제 자금 조달시 14~18%를 부담하고 있다고 답하였음

- 2/4분기 이후 지속되던 은행 대출 감소세가 지난 7월에 소폭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, 8~9월에는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

□ 한은 RP 매각 금리 인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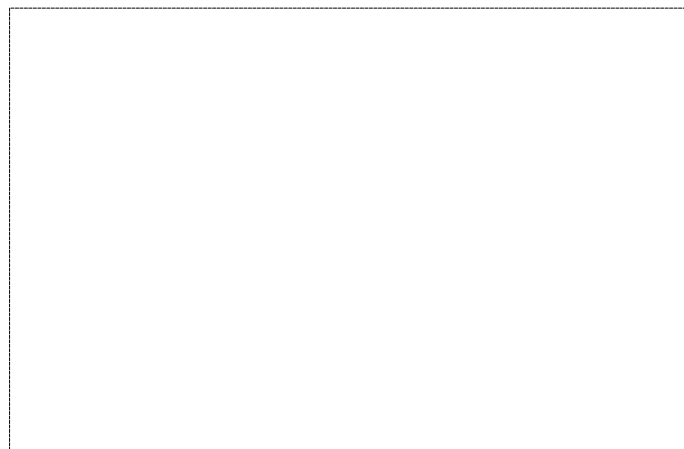
- 한은 RP 매각 금리 인하의 의미와 배경

- 지난 9월 30일에 한국은행은 RP 매각 금리를 8%에서 7.1%로 내리고 본원통화를 IMF와 협의한 25조 6천억 원 내에서 신축적으로 공급할 것임을 발표하였음
- 이는 물가 상승 우려를 들어 추가적 금리 인하와 본원통화 공급 증대에 대해 소극적이던 한은이 통화정책의 방향을 전환한 것임
- 즉 1차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완료되었다는 정부의 평가에 맞춰 실제 기업의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추고 신용경색을 해소하여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임

- 한은이 기대하는 예상 파급 경로

- 한은은 RP 매각 금리의 인하를 통해 금융기관의 RP 매입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유동성을 증대시켜 콜금리의 하락을 유도함
- 자산을 RP 및 금융기관간 콜 중심으로 운용하는 금융기관의 자산 운용 수익률을 하락시킴으로써, 1) 예금을 수취할 때 지급하는 수신 금리 인하를 촉구하여 대출 하락을 유도하고, 2) 풍부한 유동성을 대출 등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대출의 위험 프리미엄을 보장함으로써 신용경색을 해소하도록 유도함

<한은이 기대하는 RP 금리 인하의 예상 파급 경로>



□ 대출 금리 하락 가능성 진단

- 대기업 대출 기준 금리는 하락 가능성이 큼
 - 대출 기준 금리의 하락을 위해서는 수신 금리의 전반적인 하락이 전제되어야 함
 - 한은이 RP 금리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어서 금융기관의 자산 운용 수익률의 하락세에 따라 신규 예금에 대한 수신 금리는 하락세를 보일 것임
 - 또한 외환위기 이후 가입된 고금리 예금은 만기 1년 미만이 주종이어서 4/4분기 중 대부분 신규 예금으로 편입되면 하락한 수신 금리를 적용 받을 것임
 -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신규 대출에 적용하게 되는 대출 기준 금리를 하락시키고, 기존의 고금리 대출도 신규 대출을 통한 상황이 증가할 전망이어서 대기업에 적용되는 대출 기준 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

- 여타 기업의 실제 대출 금리가 감내 가능 금리 수준으로 하락할지는 불투명 함
 - 대기업 대출 기준 금리의 하락은 여타 중견 그룹 및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대출 금리의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
 - 그러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여타 기업은 신용 위험으로 높은 가산 금리가 적용되고 있어서 실제 대출 금리가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낮음

- RP 금리의 인하가 신용경색의 근본적인 해소 방안이 되지는 못해 기업의 자금 가용성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을 것임
 - RP 금리 인하 및 은행 증자 완료 등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견그룹 또는 중소기업은 신용경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자금 가용성 회복은 어려울 것임
 - 대기업도 대출심사 강화 및 담보 요구 증대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임
 - 기업 구조조정의 미결로 인한 불확실성과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 수익 기반 와해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들의 신용 위험이 크기 때문임

- 향후 기업 부문의 신용 위험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함
 - 신용경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, 금융 구조조정이 조속히 완료되어야 함은 물론 여타 부문의 구조조정도 시장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져 기업 부문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어야 함

(김 재 칠 jckim@hri.co.kr ☎724-4022)